

남편살해 여성이 경험한 아내학대 분석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변 수 정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본 연구는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내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남편의 특성,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결혼 전 배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 아내학대 경험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 살인과 학대경험이 없는 여성의 남편살인에 관련된 요인들의 차이를 밝혀내어 남편살해범을 이해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형사기록지를 검토 한 후 남편살해범만을 분류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총 수집된 자료 115부 중 부적합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 경험의 수준에 따라 나눈 결과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나뉘었다. 조사대상자인 남편살해 여성 98명 중 44명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에 속했고, 나머지 53명은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에 속했다. 남편살해 여성의 중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고, 신체적인 체벌을 많이 경험했으며, 냉담·거부적인 반응을 많이 받으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중 정서적 지지는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원가족에서 자랄 때 받은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적 분위기가 결혼 후 남편과의 학대적 관계에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으로 살펴본 자아존중감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특성으로 살펴본 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회적 지지는 아내학대를 받은 남편살해 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남편과의 교제기간, 남편이 결혼 전에 폭력을 자주 행사했는지, 결혼 전에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았는지는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의 사유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의 경우 결혼의 사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이유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그들의 남편특성, 여성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사회적 지지, 결혼의 사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학대를 받고 남편을 살해한 집단과 아내학대를 받지 않고 남편을 살해한 집단은 남편과 아내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와 관련된 요인이 남편요인만이 아니라 결혼동기와 같은 부부간의 특성, 또한 여성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